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3일 경주 한 고택에서 차를 마시며 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의원들, 본연의 역할 다하도록 뒷바침”

경북도의회 운영위 워크숍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병훈)가 지난 13, 14일 양일간 9대 후반기의 의회운영에 대한 방향 설정과 주요 현안 해법마련을 위한 운영위원회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은 의회운영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지역 특색있는 문화관광지에 대한 탐방과 경주 블루원 리조트에서의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운영위원회 워크숍은 본격적인 하반기 활동에 앞서 비회기에 개최된 이례적인 행사로 운영위원들 간 의회 운영방향 설정에 머리를 맞대고 특히 하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원간의 갈등 해소와 화합책 마련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로 했다.

특히 운영위원회가 의회 운영의 중심이 돼야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비해 수동적으로 움직여오던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또 “의회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의원들이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어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원해야 하는 책임감을 갖고 활동에 임하자”고 다짐하고 이날 워크숍을 바탕으로 의회 운영과 관련한 단기 혹은 중장기 로드맵을 짜나가기로 했다.

박병훈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주요한 책무이지만 이것

이 곧 경북도의회가 선진의회로서 발돋움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경”이라 강조하고 “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운영방향을 새롭게 정립, 전환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